

4월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한성실(미학과 03학번), 박찬섭(법학과 02학번)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번 <열린지성>에서는 한성실 총학생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한성실 총학생회장은 “기쁘긴 하지만 시간이 짧은 만큼 마음도 조급하고 어깨가 무겁다”며 운을 떼었다. 4월에 당선되었기에 재임기간이 길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더 값진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는 학생회라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총학생회장 혼자서 일을 처리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 기간에 이슈가 되었던 학업대법인화에 대한 입장, 대학국이 Pass/Fail제, 생리 공결제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계획이다.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성실 총학생회장을 운동권으로만 바라본다. 총학생회장이 당선된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서울대에 운동권이 당선됐다’는 식의 기사만 올라왔다. 이에 대해 그는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선 긋기는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운동권과 비운동권을 가르기 보다는 학생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학생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성실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선거기간에도 했던 바이지만 총학생회는 무언가를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학우들과 여러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총학생회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 정리 : 이승호 / 사진 : 이정우